

함께 싸우고 함께 살자! 코스모축매 정리해고 분쇄!

희망퇴직-정리해고 무식한 일방통행

코스모축매가 희망퇴직에 이어 정리해고까지 강행하고 있다. 회사는 노조와는 제대로 된 협의 한 번 없이 7명의 희망퇴직을 받겠다고 일방적으로 공고했다. 희망퇴직으로 4명(현장직 3명, 사무직 1명)이 응하면서 5월 31일부로 회사를 떠나게 됐다. 그런데도 사측은 7명을 채우기 위해 3명을 더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계속되는 위기 협박

코스모축매는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전부터 항상 회사가 위기라고 해왔다. 2015년 노동조합이 설립될 때도 계속되던 임금체불과 구조조정 위기가 조합원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계기였다.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임금체불을 해소하는 듯 싶더니 또다시 체불하며 조합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회사

는 경영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출자전환으로 위기를 돌파하려면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회사가 말하는 그 위기는 코스모축매가 만든 게 아니고 무리하게 인수 합병하면서 만든 위기다. 그룹 차원에서 코스모축매에 폭탄을 떠안게 한 것이다.

함께 싸우고 함께 살자!

코스모축매 노동자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현장에서 뼈빠지게 일한 죄밖에 없다. 그런데도 항상 임금체불과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사측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오는 것은 여전히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더 뽄뽄 뭉쳐야 한다. 일방통행 밖에 모르는 코스모축매 자본에게 하나로 뭉친 노동조합의 모습을 보여주자. 우리는 함께 싸우고 함께 살 것이다.



금속노조 쟁점화 전국순회투쟁 마무리

금속노조가 3대 개혁입법을 촉구하는 쟁점화 전국순회투쟁을 마무리지었다. 그동안 금속노조는 울산, 대구, 부산, 청주, 인천, 창원, 천안 등을 돌며 금속노조의 요구안을 알리는 전국순회투쟁을 벌였다. 지부도 4월 20일 청주에서 대행진 및 문화제를 열어 함께 한 바 있다.

금속노조의 3대 개혁입법 요구는 ‘재벌개혁법’, ‘제조업 발전 특별법’, ‘노조파괴 금지법’이다. 문재인 당선 이후 세상이 바뀐 것처럼 떠들썩하지만 정작 노동자들의 삶을 좌우할 개혁법안들은 제자리 걸음이라거나 후퇴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정권교체를 넘어 노동이 존중받고 평등한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 노조파괴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아직도 우리가 싸워야 할 일이 많다.

* 이번주 일정 *

■ 코스모축매 천막농성 돌입 중식집회

5/29(월) 12:30 청주시 코스모축매

■ 지부 8차 교섭

6/1(목) 15:00 한온시스템